

제28회 금산인삼축제

마당 열이라 하늘선물 '금산인삼' 나가신다~

이옥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참 오래되기도 했다.
어지간한 사내아이, 태어나
대학에 입학한 후 졸업해 직장
인이 되었을 만큼 역사가 깊은
축제였다. '금산인삼축제'는 올
해로 스물여덟 번째를 맞는다.
1981년 10월 1일, 2일 금산군
인삼선양위원회 주관으로 제1
회 금산인삼제를 개최한 후 오
늘에 이른다.

인삼축제의 유래를 설명한
글을 보면 이 역사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 남쪽으로 금산이요, 북쪽으로는 개성이다. 일제 강점기 인삼신사를 건립하고 매년 10월 상달 길일을 택해 삼엽계 원로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올리고 제등 시가 행렬과 폭죽 행사 등을 펼쳤다. 이 때 개성처럼 '인삼신사'까지는 건립하지 않았지만 금산에서도 개별적으로 '삼장제'라 하여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돌아오를 때 이 고장에 인삼을 재배토록 허락해 준 산신령에게 감사하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인삼축제의 기원을 이 때로 본다면 이제 족히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일제강점기에 제를 올렸다는 것이 좀 거슬리지만 그만큼 '인삼'을 여느 작물과는 달리 신성시했음을 알 수 있다. 최상품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6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니 신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사함을 기원해야 했으며,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인삼을 키우는 땅과 하늘에 어찌 감사함을 아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민참여 끌어낸 본무대

가을햇볕이라고 하기엔 여름햇살의 그 독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8월 마지막 일요일, 금산을 찾았다. 축제장을 찾아가는 도로에서 벌써 축제가 한창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꽉 막힌 도로는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최 측에서 임시로 마련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인삼축제가 한창인 금산인삼관 광장으로 접어들었다. 안내 텐트에서 팸플릿 몇 장을 챙겨 들고 광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첫 느낌은 2006년 인삼세계엑스포를 개최하며 개발한 콘텐츠와 역량을 축적한 축제라는 점이었다. 인구 5만 명 남짓의 작은 자치단체에서 열고 있는 축제 치고는 짜임새도 갖춰졌고 최소한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언뜻 콘텐츠가 너무 다양해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았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라는 정체성을 잘 살리고 참가자들의 동선을 고려한 지능적 배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 초입에 중심무대에서는 각 읍면별로 날을 정해 행사를 무대에 올리는 모양이었다. 8월 31일은 군북면민의 날이었다. 그날 중앙무대는 군북면 주민들 차지였다. 지역 주민들이 자칫 소외되고 외지인들의 잔치로 끝나기 십상인 특산물 축제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고도의 전략이었다. 중앙무대는 잠시 후 '전국인삼요리 경연대회'장으로 탈바꿈했다.



건강체험관 인기몰이

다양한 상설운영관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각종 체험관은 표를 받아두고 한 참 줄을 서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 중 건강체험관은 홍삼족욕, 홍삼팩마사지, 발마사지, 인삼스킨 만들기, 인삼비누만들기 등 인삼과 각종 약초를 이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관심을 모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 혈압측정 등 개인 건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높였다.

체험관에 약초향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무료 한 방치방 및 뜸, 수지침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단의 모습도 보였다. 일부 체험의 경우 약간의 참가비를 받았지만 물려드는 참가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금 체험관도 흥미로웠다. '대장금 금산 수라간'이라 이름 붙은 그곳에서는 시간대별로 갓 만들어 내 놓은 떡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수라를 받는 왕과 왕비의 복장을 갖춰 입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해 역시 긴 줄을 만들어 놓았다.

꼬마참가자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말타기, 힘겨루기 등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놀이기구는 꼬마참가자들이 축제를 지겨워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등 공신이였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이런 놀이기구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끌어들이고 해를 거듭하면서 이들이 계속 발걸음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였다. 부리면 선원리에서 개최한 인삼캐기 행사도 자연학습을 겸한 가족단위 체험행사로 준비했다.



다양한 이벤트에 축제 '풍성'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인삼교역관이였다. 우리나라에 인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다. 일반 참가자들만을 위한 전시관은 아닌 것 같았다. 9월 1일, 개막한 국제인삼교역전을 겨냥한 전시관이였다.

금산인삼 가공업체 34곳이 참가했고 12개 나라에서 초청된 30여 명의 국외 바이어가 이곳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상담도 나누었다.

축제가 벌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전국 단위 이벤트도 함께 벌였다. 충남도지사기 등반대회, 금산인삼 전국마라톤대회, 외국인 축구동아리 초청 축구대회, 인삼고를 자전거 대행진, 어르신 장기대회,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금산 인삼기 전국 족구대회 등이 모두 이번 인삼축제가간에 함께 열린 이벤트 행사다.

여기에 '파워 존'에서는 전국팔씨름천하장사대회와 줄다리기대회까지 열렸으니 가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와 축제의 어울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축제의 주제는 없다시피 하고 각종 이벤트만 설쳤다면 주객전도를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주제는 이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잘 살아 있었다. 또 금산인삼축제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전국 최대의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가 아니던가?



당귀차에 피로 풀고

몇 바퀴를 돌아도 내리쬐는 태양빛만이 부담스러울 뿐 축제현장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인삼 깎기부터 도량체험 소소한 이벤트 등이 끊임없이 그 얼굴을 달리하며 참가자들을 맞았기 때문이다.

안전한 먹거리 장터에서 인삼 비빔밥과 인삼 파전, 인삼 튀김 등 인삼을 첨가(인삼튀김을 제외하고는 인삼의 함량이 아쉬웠지만)한 음식을 먹고 돌아 나오는 길, 무료로 제공하는 시원한 당귀차는 한참을 돌아다니느라 지친 몸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었다.

금산인삼축제는 하늘 선물을 잘 활용해 지역 특산품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